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 02-555-1946 / 010-5235-1946 메일 : snuarta@naver.com 밴드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The Nature' 1부, '자연을 그리다' 개최

The Nature

더샵갤러리 X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자연을 그리다
7.11 ~ 8.5

관객: 고재영, 김소산, 김정은, 김준옥, 김호준, 김항록, 나옴, 나형민, 서효숙, 안말환, 안성규, 윤연선, 이광수, 이광택, 이승령, 이흥전, 임채욱, 조여주, 차명희, 채혜선, 최진희, 한석란 등 24명의 동문들이 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권영걸)는 'The Nature' 1부 전시, '자연을 그리다' 전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도산공원 근처에 위치한 더샵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자연을 그리다'전은 본회가 더샵갤러리와 기획 및 주최한 세 개의 전시 프로젝트 중 두 번째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는 2021년도 모교 졸업전시 작품 중 동창회장상(베리타스 미술상)으로 선정된 8인의 작품전이 '2022 베리타스 미술상전_The Nature'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

다. 이번 '자연을 그리다' 전에는 자연을 묘사한 조각과 회화작품이 전시중이다. 현재 전시 종료 후 8월 8일부터 9월 2일에는 'The Nature' 2부 전시, 자연을 재해석한 영상과 회화전 '자연을 논하다'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자연을 그리다' 전에는 강신자·고자영·김상경·김소산·김정아·김준옥·김호준·김항록·나옴·나형민·서효숙·안말환·안성규·윤연선·이광수·이광택·이승령·이흥전·임채욱·조여주·차명희·채혜선·최진희·한석란 등 24명의 동문들이 작

품을 출품하였다. 전시공간인 더샵갤러리는 그린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강남구, 포스코건설의 친환경 미래 비전과 스마트한 주거문화의 상징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이 공간 안에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한다. 한편 'The Nature' 시리즈 전시는 전시 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관람 가능하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일요일 휴관, 문의 1577-8674).



2021년도 사업내역

운영관리



▶**정기총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해 5월 13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0년도 사업회계와 2021년도 사업계획을 인준. 또한 제23대 회장에 권영걸(69응미), 감사에 이종복(66응미) · 김종선(74회화) 동문을 선출



▶**집행부 선임장 수여 및 상견례** : 제 23대 집행부 신임 김홍규(77응미/위사진 왼쪽) 상임부회장 등 임원들에게 선임장을 수여하고 상견례 및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

▶**해외지부 첫 설치 및 지부장 선임** : 본회 첫 해외지부로 미국 남가주지부를 설치하고 한석란(71조소/사진왼쪽) 동문을 지부장으로 선임. 남가주 동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기로 협약

행사 및 사업



▶**빌라다르 2021** : 9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제2회 빌라다르전(사진)을개최 참여작가 204명의 작품 304점 전시

▶**해외동문초대전(북미) 개최** : 자체 제작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10월 한달간 미국 및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동문 34명의 작품(각 3점)을 전시

▶**아카이브 운영** : 서울대미대출신동문 작품·약력 등 아카이브 운영. 수록작가 2020년 500여명에서 2021년 1000여명으로 보완

모교지원



▶**장학금 수여** : 1·2학기 연2회, 모교 재학생(석사과정 포함) 각과 1명씩 총 5명에게 장학금 수여

▶**동창회장상 시상** : 2021년도 졸업전시 우수작품을 각 전공별 1인, 8명을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2022년에 특별전 개최를 약정

▶**학생회지원** : 2021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모교 학생회 제27대 운영위원회의 '미술대학 새내기 생활백서' 제작 지원

▶**명절선물 증정** : 설날과 추석에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 근무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

회원관리 및 홍보



▶**동창회기념품 제작** : 본회 신입회원 입회시 또는 행사시 증정할 기념품(위시백) 제작

▶**E-NEWS 발간** : 동문들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사진)를 매월 발간. 3천여명에 이르는 동문 및 관련기관 등에 메일로 발송

▶**SNS 운영** :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SNS계정을 만들어 동문들과 소통

▶**홈페이지 운영** : www.snuart.or.kr 홈페이지를 자체제작해 운영. 동문들의 작품 및 자료 아카이브 수록

사회공헌사업



▶**여명학교 후원 및 간담회** :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후원금 전달 후 간담회를 갖고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

▶**청소년미술대전 회장상 후원** :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장상) 후원

▶**장학금 기부** : 관악회에 서울대장학금 기부

서울대총동창회 협력사업



▶**서울대총동창회 캘린더 작가선정** : 총동창회 2022년도 캘린더에 수록될 작품선정의뢰에 따라 김성희 모교학장, 심상용 서울대미술관장, 조정란 누크갤러리 대표,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대표 등 4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수록작품을 선정. 정재철·박미화·나형민·서도식·민정기·심현희·김유주·공성훈·

강요배·신경희·서용전·이광호·황창배 동문의 작품 13점(표지포함 각1점)

▶**2021서울미술나눔·장학기금마련전 개최** : 서울대총동창회와 함께 서울대동문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기금마련전을 10월 한달간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최. 참여작가 143명의 작품 263점 전시

비영리사단법인 운영

▶수익사업개시

2020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익사업개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2021년 1월 수익사업 개시신청을 완료하여 8월부터 수익사업을 개시.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에스아트몰(S-ARTMALL) 개설

회원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핑몰 개설.(www.sartmall.com)

▶사회공헌사업

본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장학기금 및 여명학교 후원금 기부금처리. 또한 여명학교 교육지원사업 미팅을 진행

▶회의개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총회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6월에 이사회 및 총회를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

▶사무국 운영

일자리지원금·두루누리지원금 적용사업장 재선정되어 매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

▶서울대미대동창회 지원

빌라다르2021 주관, 2021 해외동문초대전-북미 주관, 2021서울미술나눔 장학기금마련전 주관, 아카이빙사업, E-NEWS 제작, 홈페이지관리 등 지원

본회 소식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총회개최

본회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사장 권영걸)은 지난 7월 15일 15시에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근처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 3층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개최되었던 총회가 모처럼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권영걸 이사장을 비롯해 법인 정회원들이 참석하여 2021년도 사업 및 회계, 2022년도 사업계획 등 회의 안건에 대해 인준했다. 회의 안건은 ①2021년도 사업 및 회계 보고 ②감사보고 ③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2022년도 사업계획으로 사회공헌사업(장학금기부 및 교육사업), 본회와의 연계사업(전시주관, 서울대미술인 발간, 아카이빙 작업), 에스아트몰 운영 등을 예정하고 있다.

모교 소식

창의예술교실 운영



조형연구소(소장 김성희)는 서울대학교 학생처에서 후원하는 대학 연구성과 사회환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대학교 50동에서 2022년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관악구민을 위한 창의예술교실을 운영한다. 서울대학교 창의예술교실은 현재 미술현장에서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강사의 작품을 이해하고, 작가의 특화된 작업 방식 및 표현 기법을 토대로 일반인이 창작 체험을 할 수 있는 미술 수업이다.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관악구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12-16세 자녀포함) 및 지인과 동반 참여 또한 가능하다. 여름방학을 맞아 교직원과 구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예술을 가까이 체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본 창의예술교실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형연구소와 관악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송부하도록 하여 접수했다.

미술대학 BK21사업단 해외학자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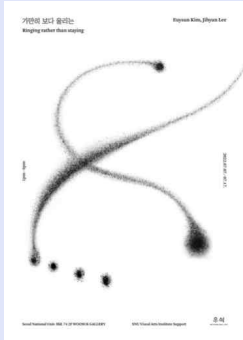
모교 디자인학부(학부장 김경선) 소속 BK21 ‘사회적 감수성을 실천하는 디자인 리더 양성 사업단’(사업단장 정의철)이 지난 7월 1일 무사시노미술대학의 Io Koichi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였다. 연사를 맡은 Io Koichi작가는 일본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금속공예가로, 무사시노미술대에서 금속공예를 공부한 뒤 모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전시를 개최한 그의 작품은 현재 영국 V&A 미술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Io Koichi 연사는 "전통 공예기법의 현대적 재해석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Metalwork Techniques"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우석갤러리 7월전시

서울대학교 74동 2층 우석갤러리



호박 방울
7.7 – 7.17
조유경(석22조소)
최고래(석22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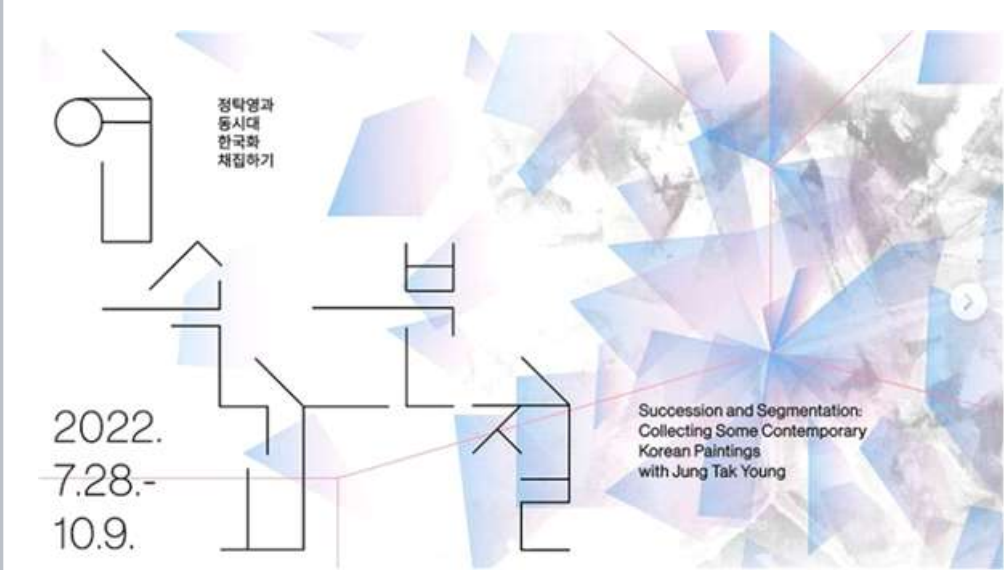


가만히 보다 올리는
7.7 – 7.17
김의선(석20조소)
이지현(석20조소)



향해표류기
7.20 – 7.29
김민형(석20동양)
성소민(15동양)
정다은(14동양)
Sven Teufer(석21동양)

서울대미술관 소식



연속과 분절

전시 ‘연속과 분절-정택영과 동시대 한국화 채집하기’전이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열린다. 본 전시에는 작고한 모교 명예교수 정택영 동문의 작업과 동시대 한국화 작가 구나영·권세진·김은형·김인영·민재영·손동현·유승호·이지영·진민욱·최은혜·허진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1937년 황성에서 태어난 정동문은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며 미군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일찍 사생에 소질이 있었다. 1956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 후 학사를 마쳤고 졸업 당시 이미 국전 특선 작가였다. 정동문은 이후 한국 화단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묵림회 창립멤버로서, 그리고 20세기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수묵추상작가로서 한국 미술사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또한 1983년부터 2003년

까지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모교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2012년 작고했다. 정동문이 60년대 이후 수묵추상작품을 발표해 온 작가로 유명했던 만큼 2000년대 이후 마분지에 커터 칼로 그린 ‘칼그림’의 등장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칼그림들의 소재는 춤추는 듯 역동적인 포즈의 인물 실루엣이었듯 그의 작품들의 재료와 기법은 수묵으로 한 정지를 수 없다.

The Wings : 예술가의 날개



‘The Wings: 예술가의 날개’전이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학교병원 내에 위치한 대한외래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외래갤러리 전시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이 그림과 함께 내적 치유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적 그래픽과 단색 추상, 일상 아이템 일러스트레이션과 레이어드 회화 작업을 아우르는 폭넓은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두 작가 허우중과 이대희의 작업을 선보였다. 양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 듯한 작가의 작업 방향은 사실 굳건한 현실 인식과 그 너머에 대한 사유라는 두 힘이 서로 얹혀서 예술가의 창작을 추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허우중, 이대희 작가의 작품들은 일상을 되찾아가면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향해 다시 움직여보는 이 시기를 함께 하자는 의미가 담긴 장을 제공하였다.

100억원 약정 메가젠에 감사패



서울대학교 오세정(사진 왼쪽) 총장은 지난 6월 14일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100주년기념금' 100억원을 약정한 메가젠 박광범(사진 오른쪽)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1년 기준 9년 연속 임플란트 중주국인 유럽 수출 1위를 기록한 메가젠 임플란트 박광범 대표는 "도

전정신으로 일군 기업의 이윤을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라며 "메가젠의 기업 철학처럼 젊은 치의학 인재들이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다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정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 진출해 더욱 넓은 세상의 리더로, 연구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가주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오세정)과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회장 박제환)는 지난 6월 26일 미국 LA 새누리교회에서 서울대 발전을 위해 후원해 준 미국 동문 및 교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서울대학교 이음음악회'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남가주 동문은 물론 LA 지역 교포들도 초청해 동문 및 한인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부생을 선발해 미국 방문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아 국제적 인재를 육성하는 'SNU이음장학금'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SNU이음장학금으로 올해 처음 15명의 이음장학생이 선발되었으며, 장학생들은 6월 말부터 한 달 가량 미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노명호(61토목공학) 회장이 SNU이음장학금에 10만 달러의 거액을 기부했으며, 이 외에도 대한항공과 오투기함태호재단 등에서도 장학금을 쾌척했다. 또한 JTBC 팬텀싱어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포르테 디 콰트로의 김현수(05성악), 손태진(08성악) 동문도 재능기부로 이음장학금에 함께 참여했다. 오세정 총장은 "멀리서도 서울대학교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해주시는 동문과 한인 지역 사회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만에 개최되는 음악회를 통해 열심히 살아온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선율로 넉넉히 채워지길 바라며 이러한 응원의 소리에 힘입어 서울대도 사회의 책임감 있는 주체로서 아름다운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큐브위성 양방향교신 성공



새벽 3시 21분쯤 교신을 시작한 서울대 지상국은 3시 27분쯤 큐브위성에 안테나 전개 명령을 보냈고, 이에 반응한 위성이 안테나를 펼치면서 상태정보가 수신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기창돈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팀이 만든 SNUGLITE-II는 GPS 반송파 신호를 활용해 정밀하게 대기관측을 하는 임무를 맡았다. 본격적인 임무 수행은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발사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성능검증위성에서 분리된 큐브위성 'SNUGLITE-II'(스누그라이트-2)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서울대 연구진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큐브위성이 지난 7월 4일 새벽 지상으로 상태정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농촌SNU공헌단 운영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9월부터 농촌SNU공헌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SNU공헌단 '샤농샤농'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출국이 제한되고 물가 상승이 맞물려 농가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서울대 구성원이 함께 취약 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글로벌사회공헌단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관한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글로벌사회공헌단은 학부생·대학원생·교수직원 등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농협은 활동지 선정, 상해보험 가입, 봉사활동 시간 인증 등의 절차를 맡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회 10~15명, 총 180명의 서울대 구성원이 샤농샤농에 참가했다.

학우들의 마음건강 지킴이 '학심단'



매 학기 정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내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학생심리건강지원단(학심단)이 '돌아온 마음약국' 등의 활동을 성황리에 마치고 다음 기수의 활동준비에 들어간다. 지난 1학기에 활동한 학심단 14기는 번아웃이나 분리불안 등 구성원 모두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들을 설명한 '삶이 처음인 샤내기에게', 그리고 단원들의 격려 글과 추천 음악 목록이 담긴 'DJ 학심의 심플리' 두 가지 간행물을 매주 발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팝업이벤트를 열었다. 이번 활동 중 학심단원들이 가장 노력을 기울인 것은 2년 만의 대면 프로젝트인 '돌아온 마음약국'이었다. 행사는 문화관 앞에 설치된 부스에서 학내구성원들이 직접 종이에 자신의 마음속 내재된 부정적 감정을 적고 나를 위한 응원 문구 및 비타민과 초콜릿 등의 간식 약을 처방하며 마음을 치유하도록 했다. 지난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한 행사는 총 300개의 마음 약이 조기 소진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학심단은 오는 8월 15기 단원을 선발해 새로운 팝업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중수교 30주년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학술지 '국제지역연구'의 특별호 겸 연구총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는 본 총서에 수록될 논문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인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 기획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행사 당일 한중관계 분야에 서 저명한 14명의 전문가가 모여 한국과 중국의 외교, 군사, 북한, 경제, 사회 문화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본 대담은 대면과 비대면 줌(Zoom)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50여 명의 청중이 함께했다. 심포지엄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연구소의 연구 총서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문제, 군사 등 다양한 시각에서 한중수교의 역사를 평가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연구소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오는 8월 24일에 총서를 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학술지 '국제지역연구'의 특별호 겸 연구총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는 본 총서에 수록될 논문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인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 기획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 산하 관악언론인회(회장 박제균)가 지난 7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 및 제19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양권모(81정치) 경향신문 편집인이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받았다. 양권모 기자는 1990년 경향신문 입사 후 사회부 문화부 정치부 기자를 거쳐 정치부장·국제부장·문화부장, 정치국제에디터, 논설위원, 전략기획실장, 논설실장을 역임했고 2020년 3월부터 편집인에 재직하면서 현재 '양권모칼럼'을 집필 중이다.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양 동문의 수상과 동문 언론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어 동문 언론인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와 고언을 보내주길 당부하는 한편 "동문 언론인의 정론직필을 응원하는 뜻에서 올해부터 대상 상금을 2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말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오세정 총장도 양 동문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우리 언론인들께서 환히 길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상임위원회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7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 60명이 참석하고 49명이 위임장을 보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평창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안', '온라인 쇼핑몰 운영안',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 등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그동안 사무처 운영규정은 회장 전결로 개정해왔으나, 일전에 구성된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자의적인 개정을 방지하고자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동창회 활동보고에서는 관악경제인회에는 현재 동문 기업인 67명이 가입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모임을 가질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사회공헌위원회는 약 4억 원의 모금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문 51명이 당선된 사실을 알리며 본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었다.

동문 바둑대회 개최



지난 7월 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에서 열린 제18회 동문 바둑대회에 130여 동문·재학생·교직원이 참여해 열띤 대국을 펼쳤다.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참석해 '동수상응(動須相應)'이란 바둑 격언을 인용하며 "학교도 모든 구성원과 조직이 최선을 다해 조화를 이루고, 사회와 발전하면서 성장한다."며 모교에 대한 성원을 부탁했다. 단체전은 김기욱(71농생물)·노근수(77임산가공)·이재철(86농업토목)·홍순선(92식물생산과학)·지성욱(99바이오시스템소재) 동문으로 이뤄진 농업생명과학대학팀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최강조 우승은 재학생 신영수(16동양사학) 학생이 따냈다. 이날 바둑대회에는 가족단위의 동문, 교원 뿐 아니라 재학생도 다수 참여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바둑부에 격려금을 지급했다.



여름 등산대회

총동창회 등산대회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한국의 동문을 만나러 참가한 미국에 거주하는 김경숙(75의류) 동문을 비롯 20여 명이 서로 격려하며 등산을 마쳤다. 이날 등산은 3호선 독립문역에서 만나 서대문형무소가 내려다보이고, 인왕산이 마주 보이는 안산 자락길을 걷다가 무악정을 거쳐 내려오는 코스였다. 본래는 비교적 평탄한 메타세콰이어길로 하산할 계획이었으나, 배기호 등산대장의 즉석 제안을 모두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정상 봉수대로 향했다.

8월 수요특강

- 일 시 : 8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 주 제 :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 신청기간 : 8월 1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 참 가 비 : 무료 (김밥, 생수 및 도서 제공)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 휴대전화번호 기재하여 전송
문자 1877-2039, 팩스 02-703-0755, 메일 member@snu.or.kr

2022 나눔골프대회

대회요강

- 참가범위 : 총동창회 전 회원
- 일시 : 2022.8.31.(수) 12시 접수, 티오프 13시 30분
- 장소 : 레이크사이드CC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181)
- 진행방법 : 친선팀과 단과대학별 단체전 대항전으로 진행
가. 친선팀 : 초청자 및 대회 신청자 - 신페리오 점수로 순위 결정
나. 단체전 : 각 단과대학 대표선수 4명 스트로크 점수 합계로 순위 결정
※ 메달리스트는 대표팀, 친선팀 각각 수여
※ 진행은 샷건 방식으로 진행
- 참가인원 : 40팀(총160명) * 선착순 접수 마감
※ 대학(원), 특별과정 동기들과 팀을 만들어 참석 가능

참가 신청방법 및 제공

- 참가비 : 50만원 이상(골프장 데스크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
*참가자에게는 그린파카트바캐디파그늘잡오찬·만찬 비용과 참가선물 제공
- 신청방법 : 8월 17일(수)까지 동창회에 성함, 출신대학, 휴대전화번호를 이메일(jang9869@naver.com)로 통보하고 참가비 입금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2022년도 연회비를 납부회원에 한해 신청 가능
※8월 18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 환불이 불가

9월 등산대회

- 일 시 : 9월 6일 (화) 오전 10시
- 장 소 :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
- 산 행 지 : 과천서울대공원 둘레길
- 참 가 비 : 2만원 (오찬 및 기념품 제공)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 휴대전화번호 기재하여 전송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877-2039, 팩스 02-703-0755, 메일 member@snu.or.kr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6.29-7.27)-가나다순

- 부회장회비
2021-2022년도 60만원
곽병두(84산미) 김태곤(86조소) 류길향(79회화) 박항률(70회화)
2022년도 30만원
강인선(73회화) 김천일(71회화) 나성숙(71응미) 서명덕(71응미)
이진민(83서양) 임영선(79조소) 홍승혜(78회화) 황숙현(69응미)
- 이사회비
2021-2022년도 20만원
곽순화(72응미) 장준혁(90조소) 조정란(80응미) 최영인(85공예)
2022년도 10만원
김유주(80응미) 김진경(70응미) 송근영(86동양) 송인옥(82회화)
신하순(83동양) 신현경(74회화) 이경석(84산미) 이광춘(석00동)
이중숙(82회화) 이지희(80회화) 장문걸(79회화) 최명애(70회화)
최미영(70응미) 추명희(70조소) 홍미엽(76회화)
- 일반회비 류지선(89서양) 최혜인(90동양)
- 광고후원 D-pack 20만원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

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도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 원
1/2면	30만 원
1/3면	20만 원
1/5면	10만 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 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 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 미술관 탐방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의 창립이야기

차명희(66회화)



지난 7월 21일 본지 이민주 편집주간이 차명희 동문과 남편 이수문(66건축)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을 찾아, 9월 25일까지 열리는 '아! 동양화 : 열린문'전과 아트상품샵, 카페를 둘러본 후 차동문과 대담 시간을 가졌다.

1. 화이트블럭은 누가 설계했고 건축적 특징들은 무엇인지?

화이트블럭은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갈대광장 옆에 자리하고 있다. 전면이 유리로 된 큰 창을 통해 내부에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으며 자연광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어 건물 내외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다. 건축 당시 4명의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지정 공모를 하여 당시 하버드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진희(91산디) 동문과 홍준 하버드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제출한 설계도를 선정했다. 이들은 화이트블럭 건물로 2012년 미국건축가협회 젊은건축가상(AIA Young Architects Award), 2013년 파주시 건축문화상을 받았다.

2. 미술관을 설립하게 된 뒷이야기가 궁금하다.

2009년 파주 헤이리에 있는 건물의 한 층을 4명의 작가에게 작업실로 제공하던 중 레지던스 작가를 비롯해 많은 작가가 전시할 공간이 필요해 2011년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을 지었다. 갤러리 화이트블럭으로 개관했으나 화이트블럭이 상업적인 활동보다 전시를 통한 작가지원, 관객 프로그램 운영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해져 2013년 미술관으로 등록하였다. 미술관으로 등록한 후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수용하고 작가들이 전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었다.



3. 화이트블럭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가나 전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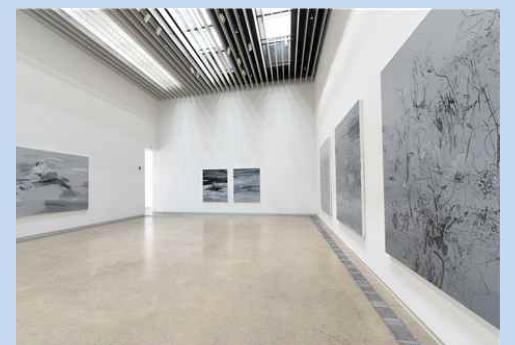
2011년 개관전인 독일현대미술작가 3인전 '사물의 재발견'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그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 중 에버하르트 하베코스트(Eberhard Havekost)가 2019년에 작고했는데 2021년 그 제자들이 스승이 했던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추모하는 의미 외에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획으로 하베코스트 제자들과 같이 10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4.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반면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지?

미술관은 상업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자율 운영이 어렵다.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강의비를 받을 수 없어 무작정 신청하고 참여하지 않는 관객도 있다.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 또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면이 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면 정말 반갑다. 또한 우리 전시나 레지던스를 거쳐 간 작가가 교수가 되고, 상을 받고,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이 있다.

5. 헤이리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천안에 레지던스를 시작한 계기는?

화이트블럭은 2019년 헤이리에 작가 레지던스를 먼저 운영하였으나 애초에 작가 레지던스로 설계한 건물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더 많은 작가에게 좋은 조건의 작업실을 제공하고자 2018년 천안에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을 오픈했다. 천안창작촌은 총 16개의 작업실과 세미나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널 스페이스, 그리고 전시장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이트블럭은 레지던스 출신 작가들을 기획전에 초대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초빙하는 등 공동 연계 프로젝트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작업이 누적된 작가, 재조명이 필요한 작가를 선정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좌)서용선 개인전, (우)차명희 개인전

6. 천안창작촌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천안창작촌은 앞으로 국제 레지던스로 발전하고자 한다. 한국작가와 해외 작가, 그리고 특히 국내외의 평론가, 큐레이터 같은 이론가가 우리 레지던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고 해외 진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문화 사각지대인 천안 광덕면에 Museum HODU를 2023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대중들의 다양한 체험공간은 물론 다음 단계로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시설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작업에 적용하기 위한 첨단 장비를 작가뿐 아니라 일반관객들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팹랩(fabrication laboratory)을 만들 계획도 있다.

7. 모교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지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작업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2
- 관람시간 주중 11:00-18:00 주말 및 공휴일 11:00-18:30(연중무휴)
- 관 랐 료 3,000원(카페이용시 무료)
- 연 락 처 TEL : 031-942-4401 FAX : 031-992-4454

화백의 작업실을 간직한 섬진강미술관

박남재(50조소/ 1929-2021)



전라북도 미술계를 대표하는 거장 박남재 동문을 기리는 의미로 개관한 전라북도 순창군 섬진강미술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섬진강미술관 명예관장이었던

박동문은 1929년 순창읍에서 태어나 모교 조소과에 입학했지만, 몇 달 되지 않아 6.25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됐다. 고향으로 돌아온 박동문은 우연히 만나게 된 한국 인상주의의 대가인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의 권유로 다시 붓을 잡게 됐고, 오 화백의 지도로 조선대학교 문리과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전주여고와 전주고 등에서 잠시 교편생

활을 하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지난 1995년 미대 학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박동문은 2013년 예술가로서 최고의 명예인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이후 박동문은 주로 전주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해 오다가 2016년 순창으로 귀향하여 섬진강미술관 명예관장을 맡았다. 구남마을에 위치한 섬진강미술관은 섬진강 문화벨트 국가산업 일환인 일명 섬진강 A+A사업으로 섬진강의 청정 지역인 적성 구남마을에 지난 2016년 4월 465㎡ 규모로 개관해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진 미술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섬진강미술관의 별관은 독창적인 색감과 표현력으로 구상화의 새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동문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 11일 향년 91세로 작고할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해 왔던 작업실이기도 하다. 현재 섬진강미술관 별관은 잠시 휴관 중이다. 박동문의 작품과 생전에 활동하던 작업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유족과 순창군이 작품의 전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재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섬진강미술관 본관(신관)은 2020년 7월 착공해 2021년 4월 완공, 지난 5월에 개관했다.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와 빛섬포럼 김인중(59회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와 유화 작가 김인중 동문의 문화적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예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빛섬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출범한 빛섬포럼이 지난 7월 2일 대부도 유리섬박물관(관장 김동선)에서 열렸다. '빛섬'은 세상에 빛을 나누어주는 사람 또는 장소를 의미한다. 올해 83세에 이른 원로 신부 화가인 김동문은 그간 유럽 굴지의 스테인드글라스 장인들과 작업을 하면서 전통기

법을 벗어나 판유리에 직접 그림을 그려 780도에 구워내는 기술적 진화를 이끌어왔다. 올해 서울대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제24회 관악대상을 수상한 김동문은 1940년 부여 출생으로, 모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프리부르대와 파리 가톨릭대에서 수학했다. 국전 특선, 민전 1회 대상을 수상한 김동

문은 1974년, 도미니코수도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유화를 비롯해 스테인드글라스, 도자에 이어 유리공예로 작품 반경을 넓혀왔다. 김동문은 프랑스 정부가 주는 문화예술훈장인 '오피세'를 받았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프랑스 가톨릭 회원에 추대됐다.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인 앙베르의 옛 재판소 자리에는 김인중 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웅준 전 대전대 총장이 축사를 통해 김인중 미술관 건립을 위한 빛섬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미술관을 설계하고 짓게 된 김동문의 넷째 동생 건축가 김억중 한남대 명예교수는 "충청남도로부터 미술관 설립 허가를 취득한 후 국내외 1,500여 작품을 관리할 수장고가 절실하던 차에 제대로 된 사설미술관 설립을 결정하고 관광진흥기금 60억, 자부담 40억 등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빛섬미술관은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2024평 대지 면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빛섬미술관의 정신은 문화재복원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도 구현될 예정이다.

명예박사학위 수여 및 특임교수 임용 변영혜(78회화)



변영혜 동문이 지난 7월 12일 대한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예술철학)를 수여받고 특임교수와 겸임교수 직위를 동시에 수여받았다. 변동문은 두란노서원에서 발행한 구약1 성경책의 삽화를 비롯해 성경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왔으며 이는 신학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문화예술의 중요한 예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명예박사학위는 변동문 작품의 기독교적 의미를 대신대 교수진과 총장이 인정하여 수여한 것이다. 변동문은 지난 순창신대학

교 국제평생교육원 세미나에 참석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변동문의 작품들은 '실천신학(기독교와 예술)' 강의교원을 찾던 대신대 측에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으며, 변동문이 제출한 이력서는 대학 원장과 총장에게 올라가 특임교수 채용으로 이어졌다. 변동문이 맡게 될 수업이 석박사 코스이기에 담당교수에게 박사학위가 필요하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지난 12일 변동문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또한 특임교수와 함께 겸임교수로도 채용되어, 신학생 전원이 변동문의 수업을 받게 된다. 겸임교수가 되면 정년이 없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변동문의 직위가 유지되며, 이러한 경우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측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편 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1한국미술상, 기독교여성 예술인상,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연2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설악산 일기' 펴낸 부부 화가 김근희(78회화), 이담(78회화)



김근희·이담 동문이 설악산에서 보낸 10년을 그림과 글로 실은 '설악산 일기'를 펴내며 화제가 되었다. 김동문과 이동문은 설악산에서 만난 식물 327점을 화폭에 그려 그중 200점을 엄선해 책에 담고, 각각의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일기 형태로 실었다. 이 책은 일종의 설악산 식물

에세이이지만 식물학자가 아닌 순수미술 화가의 시선, 등산 입문자의 시선, 기후위기에 공감하는 50대 부부의 시선이 대신 담겨있다. 뉴욕에서 음악교사가 된 딸 이은씨가 한국 전통음악에 반해, 풍물을 배우겠다고 한국에 2년간

머물게 되면서 딸과 함께 우연히 속초에 거처를 마련한 부부는 설악산에 깊이 매료되었다. 처음에 비선대를 오가던 부부는, 수렴동계곡을 오르고, 십이선녀탕계곡을 오르고, 귀때기청봉을 오를 정도로 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을 정갈한 그림과 간단명료하면서도 섬세한 글로 표현했다. 설악산의 식물과 나무를 관찰하고 그리는 작업은 2010년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이어졌다. 김동문은 붓으로 키 작은 식물을 그리고, 이동문은 키 큰 나무와 풍경을 주로 그렸다. 두 동문은 설악산의 자연을 그림으로만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 앞에 '느린산 갤러리'를 마련해 친환경적인 삶과 예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김동문과 이동문은 미국에서 알려진 저명한 화가다. 모교 서양화과와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대학원을 졸업한 동기 동창으로, 미국에서 창작 그림책을 여러 권 냈으며, '야구가 우리를 살렸다(Baseball Saved Us)'와 '영웅들(Heroes)', '자유를 향한 여정(Passage to Freedom)' 등은 미국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정읍 황토현전적지 '불멸 바람길' 임영선(79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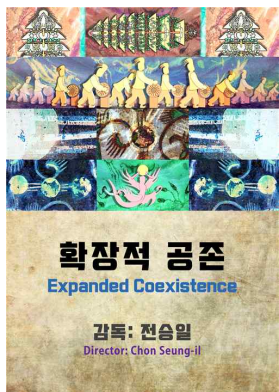


어난 조각가로 정평이 나 있다. '불멸, 바람길'은 고부 농민 봉기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 투조, 환조의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군상(群像) 조각이다. 임동문의 작품은 앞서 정읍시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받아 친일 작가 작품으로 지적돼온 황토현전적지(사적 제295호) 내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를 2019년 9월 13일 철거한 뒤 설치된 것으로, 과거의 수직적

임영선 동문의 동학농민혁명 동상 '불멸 바람길'의 제막식이 지난 6월 26일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거행되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임동문은 중앙미술대전 조각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실력파로, 대한민국에서 동상 인물 표현에 가장 실력이 뛰어난 조각가로 정평이 나 있다. '불멸, 바람길'은 고부 농민 봉기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 투조, 환조의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군상(群像) 조각이다. 임동문의 작품은 앞서 정읍시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받아 친일 작가 작품으로 지적돼온 황토현전적지(사적 제295호) 내 전봉준 장군 동상과 부조를 2019년 9월 13일 철거한 뒤 설치된 것으로, 과거의 수직적

위계질서의 구도를 타파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작품 배치를 사람인(人)의 형상으로 배치했으며, 이는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이 작품 전체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인물이 강조되어 높은 좌대 위에 설치되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형식을 지양했다. 행렬의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의 크기와 위치를 민초들과 수평적으로 배치,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갓을 벗어버린 채로 들고 가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에서 신분제의 차별을 스스로 내려놓아 신분제의 차별을 없애고 시대의 불합리한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혁명가의 의지가 돋보인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이번 작품을 통해 역사의 한 장면에 시민들이 어우러져 동참하며, 이름 모를 농민군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식이 결여된 조각가가 제작한 전봉준장군 동상의 철거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학계와 시민들의 염원을 받드는 것이 동학농민군이 꿈꿔왔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확장적 공존', 최우수 실험영화상 수상 전승일(85서양)



이선 '기억'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7개가 넘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부산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단편영화제 등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등

전승일 동문의 신작 실험 애니메이션 '확장적 공존 Expanded Coexistence'이 EdiPla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ew York International Film Awards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되는데 이어 New Creators Film Awards에서 '최우수 실험 영화'상을 수상했다. 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국대 대학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 학부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2년 단편애니메

1세대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전동문의 이번 작품은 유토피아가 지상계와 천상계, 인간계와 신의 세계에서 중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질문에 유토피아는 시간적인 것인가, 공간적인 것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비물질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뒤따랐다. 이러한 물음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은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는 유토피아의 인류적 · 존재적 · 우주적 보편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기호들을 우리나라 고구려 고대 벽화에도 등장하는 우주수(宇宙樹)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위그드라실(Yggdrasil)에서 찾아 실험적인 영상미를 추구하였다. 흔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이상향을 향한 인류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한다. 작품 속에서 운동하는 '수레바퀴의 신'은 이를 상징하며, 우주 공간의 하트는 이상적 사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타성의 공존'을 상징한다.

엔데믹을 맞은 팝스타 통역가 태인영(93공예)



타들을 만난 태동문은 모교 공예과 2학년 재학 시절, 노래 대회에 나갔다가 DJ 김광한 선생님의 제안을 받고 업계에 발을 들였다. 그렇게 당시 뉴에이지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던 그리스 음악가, 야니의 통역으로 첫 통역을 시작하고 440명이 넘는 내한스타들의 통역을 맡아왔다.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의 폴 매

태인영 동문은 내한 팝스타 통역의 대명사다. 팝 전문 MC이기도 한 그녀는 30년가량 500명에 가까운 해외 뮤지션들을 만났다. 동시에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통역을 할 때 그녀가 보이는 법은 결코 없다. 뮤지션이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 뉘앙스만 오롯이 전달하고 본인은 뒤로 쏙 빠진다. 드디어 엔데믹 시대가 왔고, 팝 스타들의 내한 러시도 다시 시작됐다. 500명이 넘는 세계적 스타들을 만난 태동문은 모교 공예과 2학년 재학 시절, 노래 대회에 나갔다가 DJ 김광한 선생님의 제안을 받고 업계에 발을 들였다. 그렇게 당시 뉴에이지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던 그리스 음악가, 야니의 통역으로 첫 통역을 시작하고 440명이 넘는 내한스타들의 통역을 맡아왔다. 마이클 잭슨과 비틀즈의 폴 매

카트니, 퀸의 브라이언 메이와 같은 역사적인 팝스타들과도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해외 뮤지션 내한이 완전 끊기며 업계는 어려움에 빠졌다. 태동문은 코로나19 직전 영국에서 '배철수의 음악캠프' 영국 특집을 함께 한 뒤 싱가포르에 돌아온 다음날 국경이 닫혀 6개월 간 꼼짝 하지 못했던 상황을 전해주었다. 통역가로서 태동문은 팝 내한 뮤지션 통역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등에 힘을 쏟기도 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참여했다. 통역사는 때로 시 발전에 따라 사라질 직업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태동문은 이런 세간의 인식을 부인한다. 아카데미 시상식 기간 동안 봉준호 감독의 통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샤론 최 통역가도 느낌과 뉘앙스를 영어로 잘 전달하는 데에 집중했듯이, 태동문은 통역이 앞으로 대화의 맥락과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에 가치를 두며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태동문은 지금도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태동문은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더 공감해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부산비엔날레 초청작가 선정 이미래(08조소)



은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이름을 올렸다. 부산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세대, 남녀 절반으로 구성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동문을 포함하여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남, 니나 바이어 + 밥 길, 남화연, 김성환 등 약 70여 명의 작가는 오는 9월 부산을 직접 방문한다. 참여

이미래 동문이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될 2022 부산비엔날레 참여작가로 선정되었다. 이번 초청작가 26개국 64팀의 명단에 든 이동문

작가들은 《물결 위 우리(We, on the Rising Wave)》라는 주제 아래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와 도시 구조의 변천 속에 새겨진 이야기를 돌아보고 전 지구적 현실과 연결하는 작품을 준비 중에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 중인 이동문은 기계장치와 비계 등 산업적이고 기술적인 물질들이 가진 즉물성과 운동성을 탐구하며 실험적인 미학을 추구해왔다. 이동문은 2012년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젊은 작가다. 인간과 행위, 인체나 동물의 기관 등을 기괴하면서 움직이기도 하는 '개념적 조각'으로 형상화 한 특유의 작업으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2016년 서울 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년 광주비엔날레, 2019년 리옹비엔날레 등에 참여했고, 일민미술관·아트선재센터 등의 기획전에 함께 했다. 2017년에는 국제갤러리가 신진작가 발굴을 위해 현시원 독립큐레이터에게 의뢰한 기획전 '스노우플레이크' 전에 참여했고, 2020년에는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동문은 프랑스 파리 시테,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등의 레지던시, 2018년 네덜란드의 라익스아카데미를 거쳐 지금은 암스테르담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1세대 추상화단 이영룡 회고전 이영룡(58회화)



원로작가 이영룡 동문의 회고전이 지난 7월 7일부터 23일까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한국 현대 추상미술의 전개 과정에서 작가 개인으로서의 작품 활동은 물론 평생 수많은 제자를 길러 낸 미술교육자로서, 또 주요 미술 단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미술계의 대표적인 원로 작가다. 이번 전시는 작가 생활 초창기인 1960년대 초반의 작업부터 최근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100여 점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등을 아우르며 작가의

60년 화업을 정리하는 전시였다. 한편 이동문은 1939년 대구에서 태어나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인 1960년대 초 '백' 동인 등에 참여하면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미술 활동을 시작했다. 1963년에는 김진태, 김구림 등과 함께 대구지역 최초의 추상미술 그룹인 '앙그리'를 결성했으며, 이어 1972년에는 지역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추상미술 단체인 신조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50년 넘게 이끌고 있다. 이동문은 대구 추상화단의 첫 세대 대표 작가로, 시대적 정서와 인간적 고뇌를 현대성을 바탕으로 예술 속에 치열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한국 추상회화의 단편을 보여 주는 작가의 노작(勞作)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 대구 추상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원로작가의 작품세계의 진면목을 감상하고, 대구 현대 추상회화를 개척해 온 작가의 치열한 도전정신과 철학적 사유를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명자 개인전 노명자(63응미)



노명자 동문의 개인전이 서울 마포구 M Gallery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노동문은 원숙한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야외 사생 작업에 몰입하는 작가이다. 모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뒤 15년 동안의 공백기를 거쳐 38세의 나이에 다시 그림에 전념한 노동문은 우화한

기간 동안 모은 에너지를 오히려 그림을 위한 집념으로 바꾸어놓았다. 노동문이 화가로서 다룬 소재는 정물, 인물, 풍경부터 누드데생에 이르기 까지 그 소재의 폭이 넓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동문의 작품은 사실화로 일관되어 있다. 노동문은 현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화가로서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풍경과 인물을 그렸다. 화가 공동체에서 노동문의 개인적인 삶도 작품과 같다. 삶과 화업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인생과 화가의 길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노동문은 1988년 창립한 한국인물작가회에서 30년 동안 부회장직을, 1988년부터 출품해 온 한국풍경화가회에서는 2016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봉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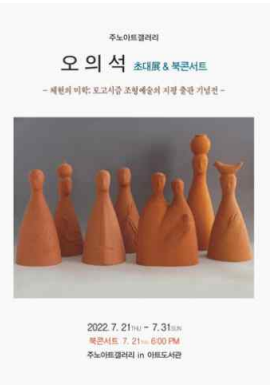
1970-낙산다방의 수다 70학번 동문 26명



70학번 동문전인 '1970-낙산다방의 수다'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광화문 갤러리내일에서 개최되고 있다. 참여 동문은 작고한 김억 동문을 비롯해 권경연, 김영신, 김혜자, 박남희, 박종선, 박항률, 백순실, 백혜란, 송근배, 예윤숙, 윤정섭, 이수정, 이순중, 이인옥, 이주숙, 정재규, 조수도, 조영훈, 지정애, 차임선, 최명애, 최미영, 최윤정, 추명희, 하수경 등 26명으로 1970년대부터 한국미술의 격변기를 거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70학번 동문들의 회화와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히 이번 기획전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작고한 동기 김억을 추모하는 전시로서 70학번 동기들이 졸업 후 개최한 네 번째 전시이다. 연건동의 낙산다방은 70학번 동문들이 1970년대 초반 대학생 시절에 모이곤 했던 자유롭고 낭만적인 토론의 장으로, 특별한 추억이 담긴 장소다. 동기들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화실에 모여 반세기 전 낙산다방에서의 수다를 떠올리며 영감을 공유했다.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을 전공한 동기들은 졸업 후 근 5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미술의 부흥과 일익을 담당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26명의 작업을 조망함으로써 한국현대미술의 흐름과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다.

체현의 미학 ; 로고시즘 조형예술의 지평 오의석(74조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오의석 동문의 초대전이 지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개막일인 21일에는 북콘서트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초대전과 북콘서트는 오동문의 정년기념 저서, '체현의 미학 ; 로고시즘 조형예술의 지평' 출판을 기념하며 연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 1년 가까이 기다려온 전시였다. 미술평론가 김숙경은 오동문의 인물상에서 '가공되지 않은 조형'을 보았다고 평했다. 그 '가공되지 않음'은 존재에 침투해 있는 억압의 사슬과 그 억압의 고리를 끊어낸 예수에 대한 오동문의

성찰을 의미한다. 오동문은 매체사용이나 조형적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이었고 자유로웠다. 철조에서 테라코타를 오갔고, 포토콜라주에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매칭, 때로 작업의 영역을 환경조각이나 공공조각으로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동시대를 휩쓸었던 주류 세속미학에 편승하기를 거부했다. 무릎 꿇지 않은 주체의 기도 없는 미학, 현대미술을 풍미하는 요란스러운 감각적 변주와 해체의 영성을 추구했던 그것을 오롯이 경계했기 때문이다. 오동문의 조형미학에 따르면 조각은 물질적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외 없이 성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드리워져 있다. 한편 오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에서 '한국 현대 미술에 체현된 로고시즘(Logos-ism)연구'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학장 및 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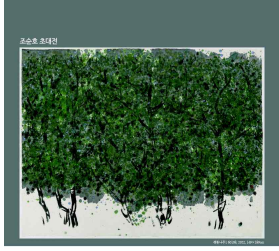
화폭에 담은 생명의 노래 김병중(74회화)



자연과 생명을 캔버스에 노래해 온 김병중 동문의 전시가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서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였다. 학부 재학 중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가였던 김동문은 서울대 미술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다. 김동문의 대표작으로는 '바보예수' 시리즈, '라틴화첩기

행' 시리즈 등이 있다. 김동문의 모든 작품의 토대를 이루는 심미의식은 '생명'으로,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이 결합된 동시에 전통적 동양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선이 조화를 이룬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생명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생명의 노래' 시리즈와 '풍죽' 시리즈를 선보인다. 생명의 노래 연작 중 '화홍산수'는 생명이 만개하는 순간 분출되는 생명을 그려내고 있다. 중앙에 자리잡은 붉은 꽃은 생명의 눈동자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김동문은 "꽃과 나무의 심장 그리고 새들이 눈으로 나누는 대화들을 화폭에 옮겨 보려했다"며 "(‘풍죽’과 ‘생명의 노래, 송화분분’)은 어릴적 보았던 몽환적인 송화가루의 이동과 달빛에 풍죽이 일렁이는 대숲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가볍게 단순하게 조순호(78회화)



가볍게 단순하게
2022.5.13. (화) - 6.30. (토)

조순호 동문의 초대전 '가볍게 단순하게'가 충청남도 천안시 리각미술관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조동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을 그쳐 '가볍게, 단순하게' 대면했다. 작품 '쥐똥나무1', '쥐똥나무2'는 조동문이 작업실 주변에서 대면했던 흔한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이다. 번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먹을 뿌리듯이 그린 발묵법과 먹

덧칠하는 적묵법이 두루 병행된 이 연작에는 푸른 녹색과 검은 먹색이 한데 어우러진 채 그의 '최소한의 작의와 흥'이 흐드러지게 펼쳐졌다. 이는 마치 한껏 부푼 동심의 유희처럼 보였다. 조동문에게 흥은 자연 혹은 사물과 만나 자신과 무의식적 동화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이다. 몸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의탁해서 창작에 뛰어드는 무목적적 회화 행위로 이성적 사유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창작을 하는 조동문의 작품은 '최소한의 작의와 흥'을 통해서 '최대한 가볍게, 단순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의 관조의 태도가 낳은 '미혹을 여윈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출생인 조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현재는 대전대 예술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달콤한 대지 - 빛 소리의 영혼 도학회(81조소)



주목받는 작가였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달콤한 대지 - 빛 소리의 영혼'은 별

한서대 교수로 재직 중인 도학회 동문의 열세 번째 작품전 '달콤한 대지 - 빛 소리의 영혼'이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유성구 플랜에이에서 개최되었다. 조각가이자 학자인 도동문은 그림을 그리고 장편소설을 5편이나 발표했다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모교 졸업 후 1989년 첫 개인전을 열고 각종 단체전과 초대전 등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도동문은 이른 시기부터

에 담긴 태초의 영혼이 세상에 정착하는 상황을 설정한 시리즈였다. 한서대 교수로 부임한 후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을 연구하기 시작한 도동문은 고구려 사신도는 고대의 천문사상을 고스란히 형상화 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별자리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도동문은 전통문화의 상징이자, 의식세계에서나마 타락하지 않겠다는 상징이자 조형언어인 별에 집중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한편 도동문의 이번 전시는 미술계 최초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했다. 도동문은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시절 결심했던, 반드시 그 보답으로 최소한 열 배는 남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록우산과 함께하였다고 말했다. 도동문은 또한 작가와 재단의 협력이 미술계에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전시 수익금 일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 후원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FLUX 이정태(84서양)



통해 "존재는 시간의 흐름과 리듬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진다"며 "시간은 존재의 영원성을 부정하며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면을 포착하여 묘사하였다"라

이정태(84서양) 동문의 개인전 'FLUX'가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갤러리 이레에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렸다. 'Flux'란 '흐름, 끊임없는 변화'라는 뜻을 지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이동문은 공간과 시간 속에 머무는 사물과 풍경 안에서 흐름을 읽어내 섬세한 붓질과 독창적인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동문이 작가 노트를

고 말한 것과 같이 이동문의 작업은 산수의 본질적 탐구와 필치의 자유로움에 주목한다. 이동문은 실경의 풍경을 다루지만 형상보다는 자연의 본질인 음양의 흐름을 탐구하는 방식에 집중하며, 특히 색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을 보인다. 이동문의 자연은 실경을 근거로 제작해 작가가 관념적으로 해체 또는 재가공해 그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경산수와 매우 닮아있다. 이는 작가의 시점으로 재조합한 산으로 관객에게 실제보다 압도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다. 이같은 철학적 사유 끝에 이동문의 작품은 오직 푸른색 하나로 표현되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또한 1993년 서울 덕원갤러리를 시작으로 '흐름과 리듬' 시리즈를 비롯한 30회가 넘는 꾸준한 개인전과 100여 회에 이르는 국제전과 단체전 활동을 해왔으며, 2008년에는 중국 길림예술대학 객좌교수로 활동하였다.

INTO Light 박현주(87서양)



다. 무한한 색을 허용한 '빛 그림' 바탕은 치열하다. 생아사천에 토끼 야교로

빛을 화두로 작업하는 작가 박현주 동문의 신작 전시 'INTO Light'전이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예화랑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박동문은 그동안 선보였던 '회화적 오브제'-반입체 작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담은 캔버스 평면 작업 '빛 그림' 시리즈를 처음 선보인다. '빛 그림'은 회화라는 단어 대신 순 우리말 '그리다'에서 파생된 '그림'을 사용해 스며듦의 미학을 전한다. 무한한 색을 허용한 '빛 그림' 바탕은 치열하다. 생아사천에 토끼 야교로

초벌 야교칠을 하고, 탄산칼슘(호분, 대리석 등의 백색 안료)과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중탕 가열한 토끼 야교 용액을 섞어 직접 만든 제소 용액으로 시작한다. 바탕에 검정 안료로 어두운 유색 바탕지를 만든 후, 안료와 여러 미디움을 혼합한 물감으로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밝은 색을 올려 나가는 반복 작업으로 완성된다. 사진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은근히 스미는', 구체화된 묘사가 없는 작업에 대해 박동문은 이렇게 전했다. "회광반조(廻光 返照)라는 불교 용어가 있다. 빛을 돌이켜 거꾸로 비춘다는 뜻이다. 불교의 선종에서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의 영성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잠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매 순간 매 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와 삶을 돌아 비추어보라는 가르침에서 작업 과정은 나 자신을 바탕지 위에 올려다 놓게 되는 시간이다."

리얼리티 테스트- 의자는 없다展 신기운(03조소졸업)



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덩그러니 중심에 배치된 의자와 체험할 수 있는 오쿨러스, 모니터 등의 영상미

신기운 동문의 '2022 기억공작소' 신기운展 리얼리티 테스트-의자는 없다'전이 대구 중구의 봉산문화회관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렸다. 이번 신동문의 '리얼리티 테스트-의자는 없다展'은 "지금 공간이 가상현실인지 실제 존재하는 공간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덩그러니 중심에 배치된 의자와 체험할 수 있는 오쿨러스, 모니터 등의 영상미

디어 기계가 존재할 뿐 실제 작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신동문은 게임엔진 기술을 사용하여 모호한 작가의 상상 속 공간이미지를 되살리는 작업을 선보였다. 관람객은 분명히 전시장에 존재하지만 영상장치를 체험함으로써 작가가 만든 기억 속 세계인 가상공간으로 이동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인 것이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새로운 예술 향유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있는 요즘, 신동문의 전시는 예술이란 존재에 근거하며 시간성과 함께 존재성으로 바라보는 의식을 통해 변화해 가는 감각의 전이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UAL의 Goldsmiths Collage에서 미술학석사를 수료했다. 2007년에 중앙미술대전을, 2010년에 영국 볼름버그에서 뉴컨템퍼러리 상을 수상했으며 15회 이상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다.

숲의 담장 임현경(01동양)



임현경 동문의 개인전 '숲의 담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OCI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임동문은 2009년 서울시 갤러리 진선에서 개최한 '나무와 돌과 새 이야기' 전시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30회가 넘는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임동문의 채색화 작품은 나무에 대한 관심과 이를 의인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작가의 나무에 대한 관심을 산수화라는 형식을 선택해 작업해왔지만, 기존의 산수화를 그

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새롭고 현대적인 동양화가 탄생했다. 임동문의 작품은 실경을 기반으로 한 풍경화가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산수화다. 자연은 임동문의 기획과 구성에 의해 화면 속에서 잘 짜인 인공적 환경의 장면으로 연출된다. 임동문의 작품은 종교적 상징성만큼이나 작품 속의 디테일을 감상하는 소형적 재미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함의를 내포하면서도 소형적으로는 관람자들과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관객은 임동문의 작품을 통해 천상과 세속의 모든 존재들과 하나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정원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임동문과 이번 전시를 주최하는 OCI미술관과의 인연은 오래 지속되어왔다. 임동문은 2012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2014 OCI미술관 지방 순회전 '별별동행'의 참여 작가로, 이번 '2022 OCI여가인 : 귀한인연展' 전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첫 주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특성 없는 여자 장파(02서양)



소설 '특성 없는 남자'를 출발점으로 삼아 제작되었다. 소설의 주인공 울리히가 스스로 '특성 없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는데, 장동문은 특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모든 특성을 자기화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동문은 남성 중심의 위계적 구조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진 여성적 특성들을 전면에 내

장파(본명 장소연)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갤러리 기체에서 열렸다. 장동문 작업의 중요한 키워드는 '여성주의적 주체성'이다. 이번 전시에는 2015년부터 시작된 'Lady X Series'를 포함해 새롭게 선보이는 'Mama series', 'A Common Woman Series' 등 신작 회화 20여점이 추가되었다. 이 작품들은 로베르토 무질의 미완성

세우고, 긍정성을 부여했다. 또 '여성적인 것'의 탐구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성의 관점을 보편화하고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교란하는 감각체계와 그에 걸맞은 회화의 표면, 질감을 고민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장동문은 미술사 혹은 문화사적 도상을 적극 가져와 그런 작가적 관심을 더 구체화하였다. 높이 2미터 중반의 대형 회화인 <Triangle of Lamentation>은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조각 <피에타 반디니>를, 중형의 <A Common Woman Series>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도상을 인용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람객은 작가의 '여성성'에 대한 관심이 개인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회화적 질감이 강조된 <Mama Series>의 내장, 눈알, 태아 등이 한 데 뭉치거나 뒤섞여 쏟아지고 있는 장면은 기괴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한편 장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며, 2020년에 저서 '화가의 말'을 출판한 뒤 모교에서 '평면조형4'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노마드랜드 'Nomadland' 김종규(06동양)



서 마련된 (재)한원미술관의 대표적인 연례 기획전시이다. 본 전시는 주제와 매체의 선택에서 전통의 범주를 넘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창작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한국화의 현대적 표현 양상을 수용하고, 시대정신을 아우르며 자신

김종규 동문의 작품이 한원미술관이 한국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시대 미술로서의 숨은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개최한 제13회 화가(畫歌 그리기의 즐거움) '노마드랜드 Nomadland'에서 지난 7월 29일까지 전시되었다. 이번 '화가(畫歌)전'은 한국화 장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역량 있는 차세대 한국화 작가를 발굴·지원이라는 취지에

의 회화적 지평을 넓혀가는 전시로, 이번 13회 화가전은 김동문과 조민아를 조명했다. 김동문은 나무, 숲, 강, 호수 등 자연의 풍경에서 포착한 인상이나 결, 운율과 같은 사유의 과정들을 비단, 먹 등의 전통재료만을 사용하여, 수묵과 여백의 묘미를 통해 서정적 풍경을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유하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현실적이면서도 낮은 풍경으로 환기하며,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성찰해 보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석·박사를 졸업했으며, 모교 동양화과 조교로 재직하 바 있다. '光/影-Light&Shadow'(갤러리미, 2020), '사색의 시간'(신한갤러리, 2018)을 포함하여 3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남도전통미술관, 2021), 'YMCA+YWCA'(갤러리이마주, 2020), '화랑미술제 신진작가 특별전 ZOOM-IN'(코엑스 C홀, 2020), 'Axis'(021갤러리, 2018) 등 그외 다수의 그룹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와 나무 오영준(08서양)



오영준 동문의 개인전 '비와 나무 Rainy Forest'가 지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서초구 스페이스업에서 열렸다. 시골에서 자란 오동문은 유년기의 기억을 채우고 자신에게 사랑, 경외, 그리움 등 다양한 감정의 싹을 틔워준 자연과 기억을 표현하는 데에 갈증을 느껴왔다. 따라서 그의 작품도 첫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연현상이나 풍경을 소재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번 '비와 나무' 전시의 작품들은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폭우', '우수'와 같이 비의 기억을 그린 시리즈와

'Forest #2'처럼 숲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그린 시리즈가 바로 그 두 유형이었다. 오동문이 과거 기억의 대상을 다시 작품에 옮기는 과정 또한 독특하다. 오동문의 작품은 모두 전선다발로 직접 제작한 붓으로 그려졌다. 붓 하나에 30개에서 많게는 60개에 이르는 꼬아진 끝부분들은 아크릴 물감이 묻은 채로 캔버스 화면에 빠르게 두드러지거나, 천천히 굽히거나, 살포시 얹혀서 특유의 질감과 마티에르를 형성한다. 전선 다발에 달린 수십 개의 끝부분은 완벽하게 제어되지 않아 몇몇 가닥이 다른 색을 찍어바르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그 어지곤 하지만, 오동문은 이 우연적인 효과를 오히려 반긴다고 말했다. 이 우연적인 붓터치를 풍경의 기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본능 혹은 무의식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오동문은 2015년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바람-바람'(2019), '우리가 숲이 되어'(2022)등 자연을 주제로 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였다.